



산업연관표

2026년 9월 21일 공보 2026-09-22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9월 22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9월 21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2024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경제통계2국 국민계정부 투입산출팀
과장 노은지, 과장 유지인, 과장 이재운, 팀장 부상돈
Tel : (02) 750-6664, 759-4460, 4273, 5095
Fax : (02) 759-4419
E-mail : ioteam@bok.or.kr

공보관 :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부 통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s://ecos.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붙임>

2024년 산업연관표(연장표)

2026. 9.

경제통계2국 국민계정부 투입산출팀

【 차 례 】

【 요 약 】

I. 경제구조	1
II. 산업연관효과	7
III. 취업구조 및 취업유발효과	9

〈부록〉 주요 용어 해설

〈별첨〉 통계표

【 산업연관표 이용 시 유의사항 】

1. 산업연관표 개요

- 산업연관표는 투입산출표, 공급표 및 사용표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 내역(소비, 투자, 수출 등)을 행렬 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로서 경제구조 및 생산, 고용 등의 산업간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 동 자료의 통계값은 당해년도 가격 기준으로 증감률 등 해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수치는 반올림되어 있으므로 상위 부문 숫자가 하위 부문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산업연관표의 이용

- 2024년 산업연관표(연장표)는 2020년 산업연관표(실측표)를 기준년표로 설정 후 간접 추계 방식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s://ecos.bok.or.kr>)의 “통계검색”을 통해 아래의 통계 분류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고용표 공표(24.6월)시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15-2019년 고용표를 개편된 2020년 고용표 작성기준*에 따라 재작성하였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업환산기준 근로시간을 하향 조정(40→36시간)하고 군인의 포괄범위를 확대(사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추가)함으로써 고용여건의 변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SNA 정합성을 제고

분류 항목		통계표 명칭		
2.2. 산업연관표	2.2.1. 2020년 실측표 기준	2024 연장표	투입산출표 (생산자가격)	통합대/중/소분류, 기본부문
			공급표 (기초가격)	통합대/중분류
			사용표 (구매자가격)	통합대/중분류
			고용표	통합대/중/소분류
	2.2.2. 2015년 실측표 기준	2015-2019 연장표	고용표	통합대/중/소분류

【요약】

① **(수출 비중 ↑)** 2024년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반도체) 수출이 큰 폭 증가하면서 총수요 및 최종수요에서 수출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상승

* 총수요: '23년 14.7% → '24년 16.1%, 최종수요: 29.4% → 31.8%

- 또한 수출률(수출/총산출, 17.3% → 19.0%)이 증가하고 대외거래 비중[(수출+수입)/총공급, 29.6% → 31.1%)도 확대

② **(부가가치율 ↑ 및 수입의존도 ↓)** 2024년 수출 공산품 영업잉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율*('22년: 40.1% → '23년: 41.2% → '24년: 42.0%)이 2년 연속 상승

- 수입의존도** (14.9% → 13.6% → 13.3%)는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하락 지속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총투입 ** 수입의존도 : 수입 중간재 투입 ÷ 총투입

- 한편, 2024년 전체 부가가치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25.0% → 26.0%)은 상승, 서비스업 비중(65.4% → 64.1%)은 하락 전환

③ **(중간재 중 서비스 비중 ↑)** 2024년 도소매 및 운송, 생산자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로 사용되는 서비스 비중(33.0% → 35.4% → 36.4%)이 상승 지속

* 정보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④ **(수출 유발 비중* ↑)** 2024년 최종수요 중 수출에 의해 유발된 생산(32.7% → 35.1%), 부가가치(25.4% → 28.2%), 취업자수(20.7% → 22.2%) 비중이 모두 확대된 반면 소비, 투자의 유발 비중은 모두 축소

* 최종수요 중 수출에 의해 전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부가가치, 취업자 수의 비중으로, 산업연관표의 중간투입 구조를 바탕으로 부문간 파급효과를 계산하여 도출

⑤ **(전업환산 취업자수* ↓, 상용직·여성 비중 ↑, 서비스 비중 ↑)** 2024년 전체 전업환산 취업자수는 공산품 부문 등이 전년 수준에 그친 가운데 건설, 농림수산물 부문 등을 중심으로 줄어들면서 2.8만명 감소(2,599만명 → 2,596만명)

* 실제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측정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작성한 고용지표

- 취업형태 및 성별로는 상용직 근로자(61.0% → 61.3%) 및 여성(40.5% → 40.8%)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는 서비스 비중(71.7% → 72.0%)이 증가

2024년 중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

(단위: 조원)



총공급 7,113.6조원

총산출(국내공급)
6,047.9조원
(85.0%)

수입(해외공급)
1,065.6조원
(15.0%)



총수요 7,113.6조원

국내수요
5,967.0조원
(83.9%)

수출(해외수요)
1,146.6조원
(16.1%)

국내 생산
총산출(국내 공급)
6,047.9



농림수산물	76.2 (1.3%)
광산품	4.6 (0.1%)
공산품	2,499.9 (41.3%)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92.7 (3.2%)
건설	338.8 (5.6%)
서비스	2,930.8 (48.5%)
기타	5.0 (0.1%)
계	6,047.9 (100.0%)

수입
(해외공급)
1,065.6



광산품	210.0 (19.7%)
공산품	652.1 (61.2%)
서비스	186.7 (17.5%)
기타	16.8 (1.6%)
계	1,065.6 (100.0%)

국내 수요
5,967.0



중간수요 3,509.1

국산	2,702.9 (77.0%)
수입	806.2 (23.0%)
계	3,509.1 (100.0%)

국내 최종수요 2,457.9

소비	1,692.7 (68.9%)
투자	765.2 (31.1%)
계	2,457.9 (100.0%)

수출
(해외수요)
1,146.6



공산품	928.5 (81.0%)
서비스	215.3 (18.8%)
기타	2.8 (0.2%)
계	1,146.6 (100.0%)

부가가치 2,538.9

비용자보수	1,225.9 (48.3%)
영업잉여	552.7 (21.8%)
고정자본소모	570.3 (22.5%)
순생산세	189.9 (7.5%)
계	2,538.9 (100.0%)

중간투입 3,509.1

농림수산물	69.6 (2.0%)
광산품	215.8 (6.1%)
공산품	1,764.1 (50.3%)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53.4 (4.4%)
건설	24.6 (0.7%)
서비스	1,276.2 (36.4%)
기타	5.5 (0.2%)
계	3,509.1 (100.0%)



한국은행
BANK OF KOREA



경제구조

1. 공급 및 수요구조 : 수출 및 대외거래 비중 ↑

□ 2024년 우리 경제의 재화 및 서비스 총공급(=총수요)은 7,113.6조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23년 6,802.7조원 → '24년 7,113.6조원)

○ 총공급에서 총산출(국내공급) 및 수입(해외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총산출 85.1% → 85.0%, 수입 14.9% → 15.0%)

○ 수요 측면에서는 중간수요(50.0% → 49.3%) 및 국내 최종수요(소비 및 투자) 비중(35.3% → 34.6%)이 감소한 반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수출 비중(14.7% → 16.1%)은 큰 폭 증가

□ 대외거래 비중([수출+수입]/총공급(=총수요))은 수출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5%p 증가(29.6% → 31.1%)

공급 및 수요구조¹⁾

(조원, %, %p)

구분	총공급		=	총수요				대외거래 (A+D)
	총산출	수입(A)		국내수요 (B+C)	중간수요 (B)	최종수요		
						국내(C)	수출(D)	
2020년	4,557.2 (87.3)	663.9 (12.7)	5,221.2 (100.0)	4,503.6 (86.3)	2,521.0 (48.3)	1,982.6 (38.0)	717.6 (13.7)	1,381.5 (26.4)
2021년	5,118.5 (86.0)	829.7 (14.0)	5,948.2 (100.0)	5,069.0 (85.2)	2,922.0 (49.1)	2,147.0 (36.1)	879.2 (14.8)	1,708.9 (28.8)
2022년	5,722.2 (84.0)	1,086.0 (16.0)	6,808.2 (100.0)	5,750.7 (84.5)	3,427.0 (50.4)	2,323.7 (34.1)	1,057.5 (15.5)	2,143.5 (31.5)
2023년 (E)	5,786.7 (85.1)	1,016.0 (14.9)	6,802.7 (100.0)	5,802.8 (85.3)	3,403.4 (50.0)	2,399.4 (35.3)	999.8 (14.7)	2,015.8 (29.6)
2024년 (F)	6,047.9 (85.0)	1,065.6 (15.0)	7,113.6 (100.0)	5,967.0 (83.9)	3,509.1 (49.3)	2,457.9 (34.6)	1,146.6 (16.1)	2,212.2 (31.1)
구성비 변화 (F-E, %p)	<-0.1>	<+0.1>	-	<-1.4>	<-0.7>	<-0.7>	<+1.4>	<+1.5>

주: 1) () 내는 총공급(=총수요) 대비 구성비

2. 산업구조 : 부가가치 중 공산품 비중 ↑

□ 2024년 총산출의 구성을 보면 서비스 비중(48.1% → 48.5%)이 증가한 반면, 건설 비중(5.9% → 5.6%)은 감소

○ 서비스는 도소매 및 운송(10.7% → 10.9%)을 중심으로 증가

○ 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 중심으로 조립가공제품(17.5% → 18.3%)이 큰 폭 증가하였으나, 기초소재제품(16.1% → 15.6%)이 감소하면서 소폭 증가(41.2% → 41.3%)

□ 부가가치 구성을 보면, 조립가공제품을 중심으로 공산품(25.0% → 26.0%) 비중 등이 증가

총산출 및 부가가치 구성

(%)

구분	총산출 구성			부가가치 구성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농림수산물	1.3	1.3	1.3	1.5	1.5	1.4
광산품	0.1	0.1	0.1	0.1	0.1	0.1
공산품	42.8	41.2	41.3	26.2	25.0	26.0
소비재제품 ¹⁾	6.0	5.8	5.7	3.4	3.4	3.3
기초소재제품 ²⁾	17.3	16.1	15.6	9.7	9.2	8.7
조립가공제품 ³⁾	17.8	17.5	18.3	11.3	10.5	12.2
제조임가공, 산업용 장비 수리	1.7	1.7	1.6	2.0	1.9	1.8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3.2	3.3	3.2	1.0	2.1	2.7
건설	5.8	5.9	5.6	6.1	6.0	5.6
서비스	46.8	48.1	48.5	65.1	65.4	64.1
도소매 및 운송	10.8	10.7	10.9	13.1	12.9	12.7
생산자서비스 ⁴⁾	20.4	21.1	21.1	30.4	30.3	29.5
사회서비스 ⁵⁾	9.7	10.0	10.0	15.9	16.0	15.8
소비자서비스 ⁶⁾	6.0	6.4	6.5	5.7	6.1	6.1
기타	0.1	0.1	0.1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인쇄, 기타 제조업제품(이하 동일)

2)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이하 동일)

3)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이하 동일)

4) 정보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이하 동일)

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이하 동일)

6) 음식 및 숙박서비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기타서비스(이하 동일)

3. 투입구조 : 부가가치율 ↑, 수입의존도 ↓, 중간재 중 서비스 비중 ↑

- 2024년 부가가치율(부가가치/총투입)은 42.0%로 전년대비 0.8%p 상승
 - 조립가공제품의 부가가치 확대와 유연탄 등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에 주로 기인
- 수입의존도(수입 중간재 투입액/총투입)는 전기·가스·수도 및 폐기물(37.9% → 33.6%) 등을 중심으로 하락(13.6% → 13.3%)
- 전산업의 중간재 구성을 보면, 광산품(6.6% → 6.1%)과 공산품(50.5% → 50.3%) 비중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 비중(35.4% → 36.4%)은 생산자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

부가가치율¹⁾, 수입의존도²⁾ 및 중간재 구성³⁾

(%)

구분	부가가치율			수입의존도			중간재 구성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농림수산물	46.4	47.1	48.1	4.3	3.4	3.0	2.0	2.0	2.0
광산품	36.0	40.5	41.4	0.8	0.7	0.7	8.0	6.6	6.1
공산품	24.6	25.0	26.4	24.9	23.3	23.0	51.7	50.5	50.3
소비재제품	22.4	23.7	23.9	18.1	17.0	17.3	8.0	7.6	7.4
기초소재제품	22.4	23.5	23.4	34.4	31.4	31.0	25.0	23.7	23.3
조립가공제품	25.3	24.6	28.0	20.1	19.8	19.8	15.8	16.1	16.4
제조업가공, 산업용 장비 수리	47.6	47.2	46.5	2.9	2.5	2.8	3.0	3.1	3.1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2.7	25.7	35.8	49.6	37.9	33.6	4.3	4.6	4.4
건설	42.3	41.8	42.3	3.9	3.5	3.7	0.7	0.7	0.7
서비스	55.9	56.0	55.5	5.1	5.1	5.2	33.0	35.4	36.4
도소매 및 운송	49.0	49.9	48.9	8.4	8.8	9.2	10.0	10.6	10.9
생산자서비스	59.8	59.1	58.8	3.7	3.9	3.8	19.2	20.7	21.2
사회서비스	65.9	66.3	66.5	4.4	3.9	3.9	0.5	0.5	0.4
소비자서비스	38.5	39.5	39.1	4.9	4.7	4.8	3.4	3.7	3.8
기타	0.0	0.0	0.0	0.1	0.1	0.1	0.2	0.2	0.2
전체	40.1	41.2	42.0	14.9	13.6	13.3	100.0	100.0	100.0

주: 1) 부가가치 ÷ 총투입(= 총산출)

2) 수입 중간재 투입액 ÷ 총투입(= 총산출)

3) 전산업의 생산활동에 중간재로 사용된 재화와 서비스 비중

4. 최종수요 : 수출 비중 ↑

- 2024년 최종수요의 항목별 구성을 보면 수출(29.4% → 31.8%) 비중은 2.4%p 증가한 반면 소비(48.0% → 47.0%) 및 투자(22.6% → 21.2%) 비중은 감소

최종수요 항목별 구성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소비	45.8	48.0	47.0
민간소비지출	33.7	35.4	34.5
정부소비지출	12.1	12.6	12.4
투자	22.9	22.6	21.2
민간고정자본형성	18.8	18.9	18.1
정부고정자본형성	3.1	3.4	3.3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	1.0	0.3	-0.2
수출	31.3	29.4	31.8
합계	100.0	100.0	100.0

- 민간소비지출의 경우 서비스 비중(74.0% → 75.0%)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운송 등을 중심으로 1.0%p 증가
- 총고정자본형성의 경우 건설투자 비중(47.4% → 46.1%)이 1.3%p 감소

민간소비지출 구성

(%)

구분	'22년	'23년	'24년
내구재	6.8	6.6	6.1
운송장비	3.1	3.4	3.1
비내구재	15.4	14.8	14.4
섬유 및 가죽제품	3.6	3.7	3.4
서비스	73.1	74.0	75.0
도소매	11.1	11.2	10.9
음식점 및 숙박	11.6	11.9	12.0
금융 및 보험	7.5	7.8	7.7
부동산	13.3	12.7	12.8
보건 및 사회복지	6.4	6.1	6.6
운송	3.1	3.8	4.0
기타¹⁾	4.7	4.6	4.5
합계	100.0	100.0	100.0

주: 1) 농림수산물, 광산물,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등

총고정자본형성 구성

(%)

구분	'22년	'23년	'24년
설비투자	27.8	27.9	28.4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5.0	4.5	4.6
전기장비	2.1	2.1	2.0
기계 및 장비	13.0	12.1	11.5
운송장비	5.9	7.3	8.5
기타 설비투자	1.8	1.9	1.8
건설투자	47.9	47.4	46.1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21.4	21.7	22.7
연구개발	15.6	15.7	16.8
기타¹⁾	2.9	3.0	2.8
합계	100.0	100.0	100.0

주: 1) 도소매 마진 등

5. 대외거래 구조 : 수출률 ↑, 수입률 전년과 비슷

[수출]

□ 2024년 수출률(수출액/총산출)은 19.0%로 전년대비 1.7%p 상승

○ 공산품(34.1% → 37.1%)이 조립가공제품(+4.6%p)을 중심으로 3.0%p 상승하였으며, 서비스(6.6% → 7.3%)도 도소매 및 운송서비스(+1.6%p)를 중심으로 0.7%p 상승

□ 수출품 구성을 보면, 공산품 비중(81.3% → 81.0%)이 조립가공제품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제품(-2.5%p)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0.3%p)한 반면, 서비스 비중(18.5% → 18.8%)은 0.3%p 상승

수출률¹⁾ 및 수출품 구성

(%)

구분	수출률			수출품 구성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농림수산물	1.7	1.6	1.7	0.1	0.1	0.1
광산물	3.1	3.1	4.1	0.0	0.0	0.0
공산품	34.9	34.1	37.1	80.8	81.3	81.0
소비재제품	11.3	12.4	14.0	3.7	4.2	4.2
기초소재제품	33.8	32.2	33.5	31.6	30.1	27.6
조립가공제품	46.8	45.9	50.5	45.2	46.6	48.8
제조임가공, 산업용 장비 수리	3.6	4.3	4.0	0.3	0.4	0.3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0.4	0.4	0.6	0.1	0.1	0.1
건설	0.0	0.1	0.1	0.0	0.0	0.0
서비스	7.5	6.6	7.3	19.0	18.5	18.8
도소매 및 운송	19.2	14.7	16.3	11.2	9.1	9.3
생산자서비스	5.9	6.4	7.0	6.5	7.8	7.8
사회서비스	0.1	0.2	0.2	0.1	0.1	0.1
소비자서비스	3.7	4.1	4.6	1.2	1.5	1.6
전체	18.5	17.3	19.0	100.0	100.0	100.0

주: 1) 수출액 ÷ 총산출

[수입]

□ 2024년 수입률(수입액/총공급)은 15.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0.1%p)

○ 농림수산물(18.6% → 17.8%)이 0.8%p 하락한 반면, 서비스(5.4% → 6.0%)는 생산자서비스(+1.0%p)를 중심으로 0.6%p 상승

□ 수입품 구성을 보면, 서비스 비중(15.6% → 17.5%)이 정보통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등 생산자서비스를 중심으로 1.9%p 증가하였으나, 광산물(21.5% → 19.7%)은 1.8%p 감소

수입률¹⁾ 및 수입품 구성

(%)

구분	수입률			수입품 구성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농림수산물	20.9	18.6	17.8	1.8	1.7	1.6
광산물	98.2	97.6	97.8	25.0	21.5	19.7
공산물	21.2	20.7	20.7	60.5	61.2	61.2
소비재제품	24.6	24.1	24.6	10.4	10.6	10.6
기초소재제품	19.9	19.3	19.3	22.6	22.0	21.2
조립가공제품	22.0	21.6	21.2	26.5	27.5	28.0
제조임가공, 산업용 장비 수리	11.4	11.3	13.0	1.1	1.2	1.4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0.2	0.2	0.2	0.0	0.0	0.0
건설	0.0	0.0	0.0	0.0	0.0	0.0
서비스	4.9	5.4	6.0	12.7	15.6	17.5
도소매 및 운송	5.1	5.7	5.9	3.0	3.7	3.9
생산자서비스	6.5	7.0	8.0	7.4	9.0	10.5
사회서비스	0.5	0.5	0.6	0.3	0.3	0.3
소비자서비스	6.0	6.6	7.2	2.0	2.6	2.9
전체	16.0	14.9	15.0	100.0	100.0	100.0

주: 1) 수입액 ÷ 총공급

1. 부문별 유발계수* : 생산 ↓, 부가가치 ↑, 수입 ↓

* 부문별 생산, 부가가치 및 수입 유발계수는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 부가가치 및 수입의 크기를 나타내며, 투입산출표의 중간투입 구조를 바탕으로 도출

□ 2024년 생산유발계수는 국산 중간투입률*(국산 중간재 투입액/총투입)이 하락하면서 전년대비 하락(1.827 → 1.808)

* 국산 중간투입률 변화(%): '22년 45.0 → '23년 45.3 → '24년 44.7

○ 부문별로 보면 공산품(1.975 → 1.933) 및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1.638 → 1.525)의 하락 폭이 큼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부가가치율이 높아지면서 상승(0.752 → 0.759)

□ 수입유발계수는 수입의존도*가 낮아짐에 따라 하락(0.248 → 0.241)

* 수입의존도 변화(%): '22년 14.9 → '23년 13.6 → '24년 13.3

부문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수입유발계수¹⁾²⁾

구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농림수산물	1.924	1.936	1.907	0.785	0.805	0.819	0.215	0.195	0.181
광산품	2.135	2.055	2.015	0.800	0.832	0.847	0.200	0.168	0.153
공산품	1.945	1.975	1.933	0.560	0.591	0.607	0.440	0.409	0.394
소비재제품	2.138	2.125	2.107	0.643	0.673	0.679	0.358	0.327	0.321
기초소재제품	1.770	1.807	1.809	0.475	0.520	0.530	0.526	0.480	0.470
조립가공제품	2.027	2.056	1.971	0.591	0.606	0.626	0.410	0.394	0.374
제조임가공, 산업용 장비 수리	1.939	1.955	1.955	0.836	0.852	0.853	0.164	0.148	0.148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665	1.638	1.525	0.336	0.487	0.567	0.664	0.513	0.433
건설	2.006	2.029	2.001	0.772	0.788	0.796	0.229	0.212	0.204
서비스	1.697	1.695	1.695	0.847	0.857	0.859	0.154	0.143	0.141
도소매 및 운송	1.762	1.737	1.747	0.807	0.818	0.815	0.193	0.182	0.185
생산자서비스	1.644	1.656	1.661	0.886	0.888	0.890	0.114	0.113	0.110
사회서비스	1.540	1.541	1.534	0.864	0.880	0.882	0.137	0.121	0.118
소비자서비스	2.090	2.068	2.062	0.781	0.802	0.806	0.220	0.198	0.194
전체	1.817	1.827	1.808	0.729	0.752	0.759	0.271	0.248	0.241

주: 1) 해당 상품의 최종수요(국산) 1단위당 생산, 부가가치 및 수입 유발액의 크기

2) 산업연관표를 1부문, 7부문, 13부문 등으로 통합하여 계산된 유발계수

2. 최종수요 유발효과* : 수출에 의한 유발 비중 ↑

* 최종수요 항목(소비, 투자 및 수출)별 유발계수는 항목별 최종수요에 의한 유발액을 항목별 최종수요로 나눈 값으로, 당해년 최종수요의 단위당 생산, 부가가치 및 수입유발액의 크기를 의미

□ 2024년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계수는 투자(1.956)가 가장 크고 수출(1.861), 소비(1.705) 등의 순

○ 투자(1.969 → 1.956), 수출(1.901 → 1.861), 소비(1.713 → 1.705)의 생산유발계수가 모두 전년대비 하락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소비(0.839), 투자(0.802), 수출(0.62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상승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¹⁾, 부가가치²⁾ 및 수입유발계수³⁾

구분	생산유발계수 ¹⁾			부가가치유발계수 ²⁾			수입유발계수 ³⁾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소비	1.719	1.713	1.705	0.815	0.831	0.839	0.252	0.239	0.236
민간소비지출	1.794	1.787	1.781	0.793	0.810	0.819	0.295	0.283	0.281
정부소비지출	1.534	1.529	1.519	0.870	0.885	0.887	0.130	0.115	0.113
투자	1.939	1.969	1.956	0.774	0.790	0.802	0.329	0.303	0.306
민간고정자본형성	1.928	1.956	1.938	0.780	0.793	0.800	0.321	0.306	0.317
정부고정자본형성	2.006	2.036	2.024	0.769	0.787	0.795	0.290	0.277	0.278
재고증감	1.933	2.053	1.652	0.624	0.649	0.543	0.617	0.375	0.639
수출	1.873	1.901	1.861	0.584	0.608	0.626	0.417	0.394	0.377
전체	1.817	1.827	1.808	0.729	0.752	0.759	0.321	0.299	0.296

주: 1) 최종수요(국산)에 의한 생산유발액 ÷ 최종수요(국산)

2) 최종수요(국산)에 의한 부가가치유발액 ÷ 최종수요(국산)

3) 최종수요(국산+수입)에 의한 수입유발액 ÷ 최종수요(국산+수입)

□ 최종수요 항목별 유발비중을 보면 수출에 의한 생산(32.7% → 35.1%), 부가가치(25.4% → 28.2%) 및 수입(38.7% → 40.5%) 유발 비중이 증가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 부가가치 및 수입유발비중

(%)

구분	생산유발비중			부가가치유발비중			수입유발비중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소비	42.7	44.2	43.5	50.5	52.1	50.9	35.9	38.3	37.5
민간소비지출	31.7	32.9	32.2	35.0	36.2	35.3	31.0	33.5	32.8
정부소비지출	11.0	11.3	11.3	15.5	15.9	15.6	4.9	4.9	4.7
투자	22.7	23.0	21.4	22.6	22.5	20.9	23.5	22.9	22.0
민간고정자본형성	18.7	19.0	17.9	18.8	18.7	17.6	18.8	19.4	19.4
정부고정자본형성	3.4	3.7	3.6	3.3	3.5	3.4	2.8	3.1	3.1
재고증감	0.6	0.3	-0.2	0.5	0.2	-0.2	1.6	0.3	-0.8
수출	34.5	32.7	35.1	26.9	25.4	28.2	40.6	38.7	4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II 취업구조 및 취업유발효과

1. 취업구조 : 전업환산 취업자수 ↓, 상용직여성 비중 ↑, 서비스 비중 ↑

□ 2024년 중 취업자*(전업환산**기준, 이하 동일)수는 2,596만명으로 전년대비 2.8만명(△0.1%) 감소

* 취업자 = 임금근로자(상용직+임시·일용직)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 실제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측정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으로 환산

[예] 1년 동안 전일제 근로자 A와 시간제 근로자 B가 취업하여 각각 하루에 8시간, 4시간 일한 경우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취업자 수는 2명이지만, 전업 기준으로 환산한 취업자 수는 1.5명

○ 상용직 근로자가 6.0만명 증가하였으나, 임시·일용직(△5.5만명),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3.3만명) 등은 감소

[취업형태 및 성별 구성]

□ 취업형태별 비중은 임금근로자 75.6%,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24.4%로 전년(각각 75.5% 및 24.5%)과 비슷한 수준

○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직 비중(61.0% → 61.3%)이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직 비중(14.5% → 14.3%)은 감소

□ 성별 비중은 여성(40.5% → 40.8%)이 상용직(24.2% → 24.4%)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남성(59.5% → 59.2%)이 감소

취업형태 및 성별 취업구조

(전업환산기준, 만명, %)

구분		2022년		2023년(A)		2024년(B)		증감(B-A)	
취업자		2,543	(100.0)	2,599	(100.0)	2,596	(100.0)	-2.8	[△0.1]
취업 형태별	임금근로자	1,907	(75.0)	1,963	(75.5)	1,963	(75.6)	0.5	[0.0]
	상용직	1,516	(59.6)	1,585	(61.0)	1,591	(61.3)	6.0	[0.4]
	남성	929	(36.5)	955	(36.8)	956	(36.8)	0.8	[0.1]
	여성	587	(23.1)	629	(24.2)	634	(24.4)	5.2	[0.8]
	임시·일용직	391	(15.4)	378	(14.5)	372	(14.3)	-5.5	[△1.5]
	자영·무급가족	636	(25.0)	636	(24.5)	633	(24.4)	-3.3	[△0.5]
성별	남성	1,532	(60.2)	1,546	(59.5)	1,537	(59.2)	-9.1	[△0.6]
	여성	1,011	(39.8)	1,052	(40.5)	1,059	(40.8)	6.3	[0.6]

주 : 1) () 내는 총취업자 대비 구성비, [] 내는 증감을

[부문별 구성]

□ 2024년 중 부문별 취업자수 비중은 서비스가 72.0%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공산품 14.5%, 건설 7.1%, 농림수산물 5.3% 순

○ 서비스(71.7% → 72.0%) 비중은 생산자서비스(+0.4%p)를 중심으로 0.3%p 증가한 반면, 건설(7.2% → 7.1%) 및 농림수산물(5.4% → 5.3%) 비중 등은 감소

□ 임금근로자수 비중은 서비스 73.7%, 공산품 17.2%, 건설 7.5% 순

부문별 취업자 및 임금근로자

(전업환산기준, 만명, %)

구분	취업자			임금근로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농림수산물	141 (5.6)	141 (5.4)	138 (5.3)	10 (0.5)	9 (0.5)	9 (0.5)
광산품	1 (0.0)	1 (0.0)	1 (0.0)	1 (0.1)	1 (0.0)	1 (0.0)
공산품	377 (14.8)	378 (14.5)	377 (14.5)	338 (17.7)	339 (17.3)	337 (17.2)
소비재제품	82 (3.2)	79 (3.1)	80 (3.1)	66 (3.5)	63 (3.2)	63 (3.2)
기초소재제품	106 (4.2)	106 (4.1)	105 (4.0)	97 (5.1)	97 (4.9)	95 (4.8)
조립가공제품	144 (5.7)	144 (5.5)	146 (5.6)	136 (7.1)	135 (6.9)	138 (7.0)
제조임가공, 산업용 장비 수리	45 (1.8)	48 (1.9)	45 (1.7)	40 (2.1)	43 (2.2)	41 (2.1)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26 (1.0)	27 (1.1)	27 (1.0)	22 (1.1)	23 (1.2)	23 (1.2)
건설	189 (7.4)	187 (7.2)	184 (7.1)	152 (8.0)	151 (7.7)	147 (7.5)
서비스	1,809 (71.1)	1,864 (71.7)	1,869 (72.0)	1,384 (72.6)	1,438 (73.3)	1,446 (73.7)
도소매및운송	460 (18.1)	455 (17.5)	452 (17.4)	275 (14.4)	277 (14.1)	278 (14.2)
생산자서비스	503 (19.8)	531 (20.4)	539 (20.8)	446 (23.4)	468 (23.8)	474 (24.2)
사회서비스	517 (20.3)	533 (20.5)	534 (20.6)	478 (25.1)	495 (25.2)	495 (25.2)
소비자서비스	329 (12.9)	345 (13.3)	344 (13.3)	184 (9.7)	199 (10.1)	199 (10.1)
전체	2,543 (100)	2,599 (100)	2,596 (100)	1,907 (100)	1,963 (100)	1,963 (100)

주 : 1) () 내는 부문별 구성비

2. 취업유발효과 :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 비중 ↑

[취업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 2024년 중 전산업 취업계수*는 4.3명으로, 부문별로는 농림수산물 18.2명, 서비스 6.4명, 건설 5.4명 등의 순이며, 공산품은 1.5명으로 낮은 수준

* 취업계수는 총산출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취업자 수를 나타냄

○ 서비스 부문에서는 사회서비스가 8.8명으로 가장 높고, 소비자서비스(8.7명), 도소매 및 운송(6.9명), 생산자서비스(4.2명) 등의 순

□ 전산업 취업유발계수*는 7.8명으로, 부문별로는 농림수산물 21.9명, 서비스 9.5명, 건설 8.9명 순이며, 공산품은 4.7명

*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국산)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나타냄

○ 서비스 부문에서는 소비자서비스가 13.6명으로 가장 높고, 사회서비스(11.0명), 도소매 및 운송(10.2명), 생산자서비스(7.0명) 등의 순

부문별 취업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전업환산기준, 명/10억원)

구분	취업계수			취업유발계수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농림수산물	19.4	19.0	18.2	23.4	23.0	21.9
광산품	2.2	1.9	2.0	7.0	6.4	6.3
공산품	1.5	1.6	1.5	4.9	5.1	4.7
소비재제품	2.4	2.3	2.3	8.8	8.7	8.4
기초소재제품	1.1	1.1	1.1	3.4	3.7	3.6
조립가공제품	1.4	1.4	1.3	4.4	4.5	4.1
제조임가공, 산업용 장비 수리	4.8	5.0	4.6	8.6	9.0	8.4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4	1.4	1.4	3.6	3.6	3.2
건설	5.7	5.5	5.4	9.2	9.1	8.9
서비스	6.8	6.7	6.4	10.0	10.0	9.5
도소매 및 운송	7.5	7.4	6.9	10.9	10.8	10.2
생산자서비스	4.3	4.3	4.2	7.1	7.2	7.0
사회서비스	9.3	9.3	8.8	11.5	11.5	11.0
소비자서비스	9.7	9.3	8.7	14.8	14.4	13.6
전체	4.4	4.5	4.3	8.1	8.2	7.8

[최종수요 항목별 유발효과]

- 2024년 중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는 소비가 9.7명으로 가장 크고 투자 7.9명, 수출 5.0명 등의 순

* 최종수요 각 항목(소비, 투자 및 수출)에 대한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유발되는 취업자 수

-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비중*은 수출(20.7% → 22.2%)이 전년대비 1.5%p 증가한 반면 소비(58.4% → 57.7%) 및 투자(20.9% → 20.1%)는 각각 0.7%p 및 0.8%p 감소

* 전체 취업자 중 최종수요 각 항목(소비, 투자 및 수출)에 의해 유발된 인원의 구성비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및 취업유발비중

(전업환산기준, 명/10억원, %)

구분	취업유발계수			취업유발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소 비	10.2	10.2	9.7	57.2	58.4	57.7
투 자	8.0	8.0	7.9	21.0	20.9	20.1
수 출	5.3	5.4	5.0	21.8	20.7	22.2
전 체	8.1	8.2	7.8	100.0	100.0	100.0

<부록>

주요 용어 해설

- ▶ **총공급** = 총산출(= 국내공급) + 수입(= 해외공급)
 - ▶ **총수요** = 중간수요 + 최종수요(소비 + 투자 + 수출)
= 국내수요(중간수요 + 소비 + 투자) + 해외수요(수출)
 -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총투입(= 총산출)
 - ▶ **중간투입률** = 중간재 투입액 ÷ 총투입(= 총산출)
 - ▶ **국산화율** = 국산 중간재 투입액 ÷ 중간재 투입액(국산 및 수입 중간재 투입액)
 - ▶ **국산 중간투입률** = 국산 중간재 투입액 ÷ 총투입(= 총산출)
 - ▶ **수입의존도(= 수입 중간투입률)** = 수입 중간재 투입액 ÷ 총투입(= 총산출)
 - ▶ **수출률** = 수출액 ÷ 총산출(= 총투입)
 - ▶ **수입률** = 수입액 ÷ 총공급(= 총수요)
 - ▶ **생산유발계수**: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의 크기
 - ▶ **수입유발계수**: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수입액의 크기
 - ▶ **부가가치유발계수**: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
 - ▶ **취업자** = 임금근로자(상용직 + 임시·일용직)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 **전업환산 취업자**: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고용량 측면의 취업자 수
 - ▶ **취업(고용)계수**: 총산출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전업환산 취업자(임금근로자) 수
 - ▶ **취업(고용)유발계수**: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전업환산 취업자(임금근로자) 수
- ※ 취업 및 고용 관련 계수는 당해년 가격 총산출(10억원) 대비 전업환산 근로자의 비율
이므로 시계열 해석시 유의